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7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14일(음력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결산

집행부 출범 발맞춰 '변화의 제도화' 성과

전반기, 종단 현안에 대응
문화재관람료 감면 종법화
3원 통합 따른 후속 입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전반기 2년은 제3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종단 운영의 틀을 정비한 시기였다. 사회 변화에 따른 종법 개정부터 총무원 조직개편, 교구본사 기능 강화까지 새 집행부의 변화에 중앙종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2년 10월 13일 선출을 마친 제18대 중앙종회는 24개 교구 가운데 직할·마곡사·불국사·송광사·선운사 등 5개 교구에서만 경선이 치러졌다. 초선 의원은 29명에 달했다. 11월 9일 임기를 시작해 주요 제도와 조직을 손질했다.

조직개편 법적 기반 마련

전반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제37대 집행부 출범에 맞춰 종단 조직개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23년 11월 열린 제229회 정기회에서 중앙종회는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별 종법 손질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종단의 조직과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논의는 다음 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2024년 3월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3원 통합 등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9월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로 총무원법을 개정하고,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을 위한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는 제37대 집행부가 추진한 종단 운영체계 변화에 중앙종회가 법적 기반을 마련한 과정이기도 했다. 특히 조직개편이 단순한 조직의 증감에 그치지 않고 총무원과 교구본사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 역시 지역 단위의 문화·포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로 평가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종법 반영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이 시행되면서 사찰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앙종회는 같은 해 9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감면에 따른 종법 개정을 단행했다.

특히 이는 사회적 변화에 종단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종법 체계에 담아낼 것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도 집행부와 종회가 주요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한 사례로 꼽힌다.

'미래 대비' 논의 본격화

전반기 중앙종회의 또 다른 특징은 종단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승려복지법 개정은 승가복지를 종단 차원의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거법도 개정해 보궐선거를 궐위 발생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선거 공백을 줄였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제한 완화를 위한 종헌 개정안은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결국 전반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구본사 주지 임기 3임 제안 역시 이월됐다. 원로회의 의장 임기 단축을 위한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제도 정비 이어 후반기 변화 '기대'

전반기는 제37대 집행부 출범에 맞춘 제도 정비와 조직개편에 무게가 실린 시기였다. 특히 종단미래대비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출발해 종헌 개정, 총무원법 개정 등으로 이어진 조직개편 과정은 전반기 중앙종회의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중앙종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전반기에 마련된 변화의 기반이 후반기에는 종헌·종법을 둘러싼 더욱 본격적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적 틀이 실제 종단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후 중앙종회의 몫으로 남았다. 5면에 계속



천년 도량에 핀 천진불 웃음꽃

나주 다보사는 10월 3일 역대 선사들의 수행정신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불교문화와 산사의 가을을 선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불기 2570년 다보사 다례문화제 및 어린이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다보사 주지 만민 스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명우 본지 대표, 불교언론인상 수상

조계종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신중일 '성보유랑' 최우수상도
대상엔 '이욱정PD 부처님 밥상'
시상식, 11월 18일 기념관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신중일 현대불교신문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조계종이 주최한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에서 불교언론인상과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는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불교언론인상에, 본지 신중일 기자의 기획보도 '성보유랑'은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7일 제34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한 방송·언론보도·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우수 작품과 불교언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명우 대표이사는 1994년 현대불교신문 창간 당시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해 불교언론과 불교계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 2024년 11월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경영 안정화와 취재·편집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하고 유튜브·SNS를 강화하는 한편 생성형 AI 상담봇 개발, AI 영상·그림 공모전 개최 등 디지털·AI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불교미디어의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의 가치와 문화를 다양한 세대와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등 불교언론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언론보도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본지 신중일 기자의 '성보유랑'은 일제의 고적조사와 식민지 전시정책을 거치며 국내외로 흩어진 불교문화유산의 유랑 과정을 짚고, 성보의 환지본처 방안을 모색한 기획연재다.

석굴암 경성 이운 계획과 조선물산공진회, 일본 오쿠라호텔에 남아 있는 이천오층석탑, 112년의 유랑 끝에 귀향한 지광국사탑,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서산 보원사지 고려철불과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등을 사례로 문헌과 당시 사진, 박물관 기록, 연구 성과 등을 살펴 성보가 흩어지게 된 과정과 그 배경을 짚었다.

무엇보다 '성보유랑'은 반출과 수난의 역사를 고발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성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을 담아냈다. 시민이 주도한 국외 환수운동,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환지본처 활동, 발굴조사와 보존시설 건립, 국가유산 지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환수를 현실화하는 과정을 현장 취재해 불교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대상에는 채널A '이욱정 PD의 부처님 밥상'이 선정됐다. 사찰음식의 역사와 철학을 인도·일본·대만·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조명했으며, 사찰음식을 음식문화를 넘어 자비와 생명존중, 공존의 가치를 담은 수행문화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부문 최우수상은 BBS '종교를 품은 잔(盞)-커피, 차 그리고 와인', 디지털콘텐츠부문 최우수상은 나투다 픽쳐스 '스님, 잘사는 방법은 뭘까요?'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방송부문 KBS '셀럽병사의 비밀' 법정 스님 편, 언론보도부문 BTN 기획보도 'AI 시대, 불교의 길', 디지털콘텐츠부문 '음악으로 듣는 불교 경전' 시리즈-금강경·반야심경·다라니 108독이 각각 수상했다. 불교문화상에는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불교의 역사적 역할을 조명한 안동MBC의 '한글불경 탄생의 비밀'과 AI 기술을 활용해 고타마 싯다르타의 발심과 출가 과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EBS의 'AI드라마-부활수업 : 고타마 싯다르타 편'이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은 11월 18일 오후 4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결산 5면
대행 선사 100주년 기념 사업 본격화 13면

창립 40주년 ANNIVERSARY
당신의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 청소년센터 건립
후원자 모집
농협 301-0278-6185-41 예금주 : 사단법인 동련



사단법인 동련(童蓮)은 1986년에 설립되어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하여 불국토를 건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자존성과 자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지도자의 조직 확대 및 어린이 청소년 교화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동련은 꿈을 키웁니다.
동련은 자비 토양을 키웁니다.
동련은 우리의 내일을 키웁니다.

이 땅의 불자들이 이 세상이 다하도록 빛날
위없는 복밭을 일구고 가꾸는 일에 크게 눈을 돌려
기꺼이 동참하는 날들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어린이청소년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증 명	혜총
고 문	정여 지현
명예총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총재	덕진 성행 신공 심산 운성 정무 지광
추진위원장	미수
추진부위원장	능후
추진위원	금륜 도제 도진 명원 연성 지우 탄경 혜성 혜타 설영일
사무총장	현수 효산
지역후원관리	김용숙 박선영 박영우 신현임 조현주 한경희
사업부 최미선	지원부 강민지 모금부 최윤주

사단법인 동련은
이 땅에 우리의 내일을 키웁니다
–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문화, 인성, 마음행복 프로그램
– 학부모를 위한 교육 및 상담
– 지도자를 위한 전문 교육
– 어린이·청소년 활동 지원 및 상담

사단법인 동련 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길 31 7층 Tel (051) 864-4569 Fax (051) 864-4665 www.dongryun.net